

대행 스님

부처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라

오늘은 우리 인간이 모든 식물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도량에서는 항상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건만 그 살생은 살생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그것이 한 진리요, 삶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괴로움도 없고 쓸쓸한 마음도 없고 또 고독한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자에 자기가 잘못해서 지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할 텐데, 자기가 괜찮았을 때를 생각하고 아주 호의호식할 때를 생각하기에 지금 가난하거나 또는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데 자식들은 있고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바탕을 삼고 거름을 삼아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자기 생각으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건 아닙니다. 업보나 운명도 물론 자기한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한 거고 자기가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딴 데다 원망을 하고 딴 데 부담을 주고 딴 데를 성가시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를 생각할 때 하나도 남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다못해 먹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수많은 밥과 반찬 또 간식으로 실과들 또는 어떤 땐 육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먹을 때 그거는 생명이 없던가요? 그것도 생명이 있고 피가 있고 마음이 있고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그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진정으로 진실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실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먹는다, 반찬을 갖추어서 먹는다 또는 때에 따라서 몸이 좀 이상하면, 먹고 싶다 하면 육식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 또한 생명, 피, 살,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줄 아시지만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치듯이 그것들도 여러분한테 다 송두리째 바칩니다. 바쳤을 때 그, 바친다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낮은 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관계상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야, 먹었더니 배부르고 참 흐뭇하고 좋더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움이 거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남을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밟고 일어설 수도 있고 또는 남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남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는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는 반면에 하다못해 참외 하나를 깎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몸뚱이의 내 중생들이, 바로 나를 형성시켜 놓은 나의 그 중생들이 이 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자기는 운동을 해 주는 그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먹습니다. 뭐, 배가 고프면,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문제지마는 도둑질을 안 하더라도 그것도 엄연히 생명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과 더불어 내 살이요, 내 생명이요, 내 피요, 바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이롭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게 합류화돼서, 바로 나로 인해서 그 식물도 모두 다 융합이 돼서 한 사람의, 즉 말하자면 무주상으로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도 식물이나 그런 것은 다 진화돼서 나와 더불어 바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보고,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꽃이 우리 인간의 노예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예지마는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웃으면 꽃이 핀 거와 같고 우리가 늙어서 찌부러지면 이것도 스러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도 업신여길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전부터 얘기해 왔지마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형성시켜서 나온 그 주인을 자기가 업신여겨서도 아니 되지마는 모든 식물 이 자체를 먹는 데도 둘로 보지 말고 자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을 놓거나 간식을 먹거나 할 때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감사합니다' 하는 걸 진실로 느끼고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서 남의 살과 남의 피를 배불리, 배가 넘치도록 먹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살과 피를 그대로 그냥 많이만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중도로서 마음을 항상 향기롭게 두고 겸손하게 두고, 하다못해 그거를 하나 깎더라도 '이것이 바로 내 살이요, 내 마음이요, 내 피가 아닌가.' 그것을 일부러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 번 음미해 볼 수 있다면 전체 우리가 살림살이할 때 그것이 다 그렇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자기의 모든 이 중생들이 이 안에 들어서 자기를 크게 인간으로서 형성시킨 것처럼 그 식물도 다 거기에 융화가 돼서, 다 인연이 돼서 역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육식도 그렇습니다.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을 때는 둘이지마는 내 살과 내 피, 내 마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석에서 바로 인간으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기복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는 한 길이요, 한 진리요, 한 벗이요, 형제 아님이 없는 것이요, 사랑 도의 의리,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존엄성 있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폭이 넓고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무(無)의 세계 50%, 유(有)의 세계 50%를 맞쥐고서 내가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모두가,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먹어 치우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똑같이 둘이 아니게 볼 수 있으니…. 그 섬기는 마음은, 자기를 송두리째 바치면서도 그 섬기는 마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이 몸에 들어가도 스스로서 살이 되고 스스로서 좋은 피가 돼 주고 그렇게 체하는 법도 없고 그렇게 이 몸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거죠.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들이 모두가 인간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마는,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은 스스로서 지혜가 쩔고 물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으로만 그렇게 가고, 이것이 모든 살아나오던 집착에 의해서 그 그릇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일체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신이라면 신이 많아서 신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 각자의 자(自)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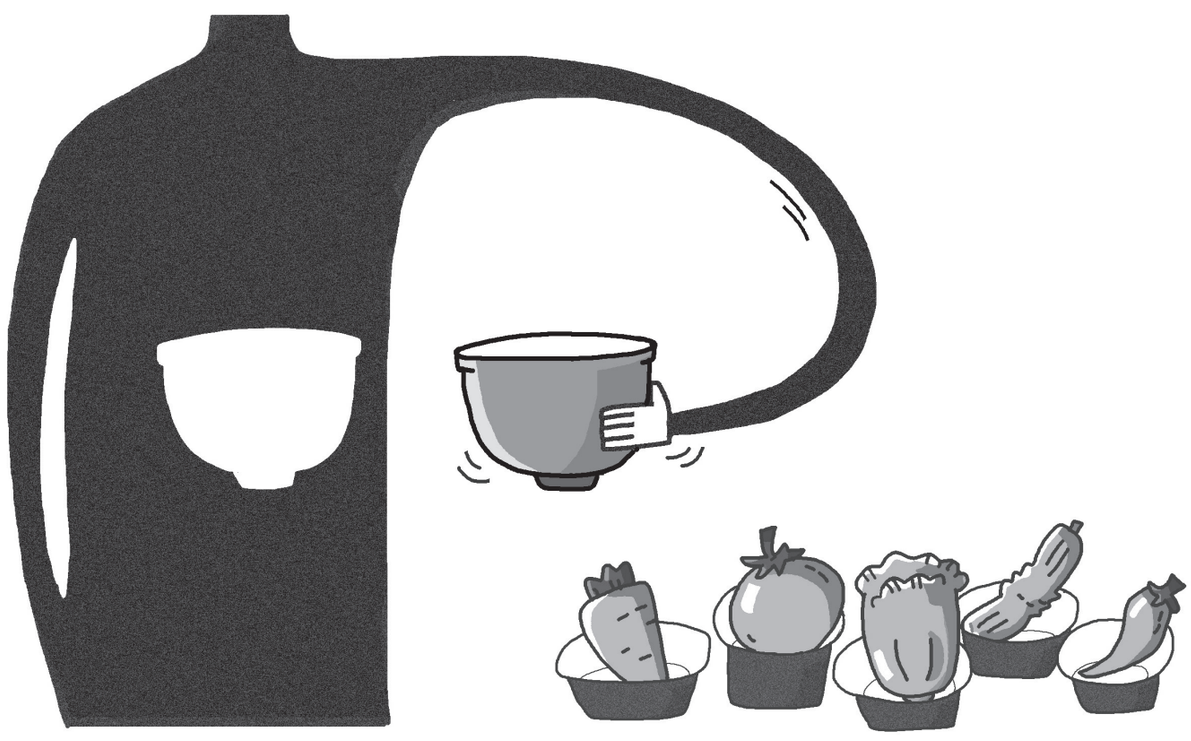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